

월드컵은 축구 경기만이 아니다. 스포츠를 넘어 세계인의 문화 축제다. 중앙 및 지방 국립박물관들은 세계인들이 한국으로 시선을 모으는 만큼 요란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색깔을 살린 특별전을 일제히 준비했다. 월드컵 공동주최를 기념해 일본의 국보급 문화재가 대거 한국전시회를 갖고 불상이나 불화, 사경 등 우리 문화유산이 일본, 중국과 어떻게 다르고, 또 얼마나 달랐는지 짚어볼 수 있는 전시회와, 지역의 국보급 문화재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회도 열리고 있다. 이런 자리에 핵심을 이루는 것이 불교 문화재다. 월드컵 기간 중 우리 나라를 찾는 외국인에게 한국의 전통 문화를 알리자는 취지의 이들 전시회에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 문화를 좀 더 깊이 알 수 있는' 소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 막오른 '문화월드컵' ... 박물관 특별전 봇물



국보 184호 금동관음보살입상(경주박물관, '신라의 금동불').



월드컵 공동주최를 기념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7월 14일까지 열리는 '일본 미술 명품전'은 일본 문화재 해외 전시 사상 최대 규모다. 국보 24점, 중요문화재 104점 등 298점이 출품됐다. 25일 박물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가마쿠라시대(13세기) 제작된 목조문수보살 및 시자상(중요문화재)을 한국의 문수보살상과 비교해 보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 회화·조각·서적 등 5분야

국립중앙박물관 '일본 미술 명품전' 회화, 조각, 공예품, 서적, 고고자료 등 5개 분야를 망라한 일본 문화재 189건 298점이 출품됐다. 이 중에는 국보 17건 24점과 중요문화재(한국의 보물에 해당) 72건 104점이 포함돼 있다. 월드컵 공동 개최를 기념해 한-일 양국의 문화재 교환전시의 일환으로 열리는 것으로 전시품 대부분이 한국에서 찾선을 보이는 것들이다.

주요 출품작으로는 에도시대 사누키산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는 기원전 1세기 무렵 아요이 시대 청동방울과 헤이안 시대 옷침공예품인 연당초무늬 마키에 경전함, 가마쿠라 시대 불상조각인 목조문수보살 및 시자상, 헤이안 시대 제석천상, 일본서기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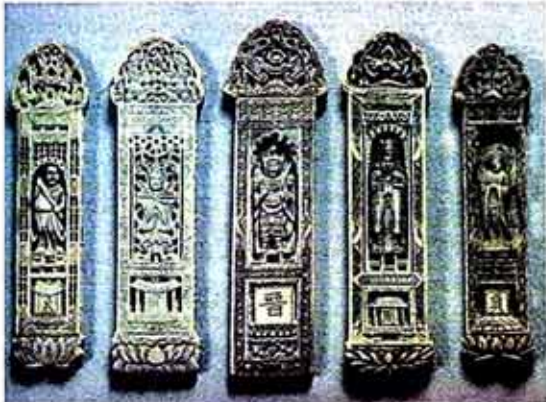
일본 미술의 원류가 대륙에 있음을 숨기진 않지만 그보다 독자적인 재창조에 초점을 맞춰 출품작을 골랐다는 것이 일본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7월 14일까지 전시. 023398-5077

### 고구려·백제·중국 불상도

국립경주박물관 '신라의 금동불' 신라의 금동불에 나타난 정신세계와 미의식을 당시 동아시아 삼국과 견줄 수 있는 전시회다. 신라 금동불상은 물론 고구려, 백제, 중국, 일본의 금동불상도 함께 전시된다.

국보 78호 금동반가사유상과 국보 184호 금동관음보살입상, 보물 331호 방형대좌금동반가사유상 등 신라의 금동불과 일본 중요문화재인 나라 반야사 소장 금동약사입상 등 일본 금동불 2점, 한강 특선에서 출토된 중국 5세기 초 금동불좌상 등 53점을 시대별, 주제별로 나눠 전시한다. 미술관 조각실(Ⅰ)에서 7월 14일까지 전시된다.

15일 개관한 미술실은 특별전이 열리는 조각실(Ⅰ) 외에도 역사자료실, 조각실(Ⅱ), 금속



국보 175호 송광사경매의 뒷면(경주박물관, '남도 명품전').

공예실, 향토사실 등 미술관 전체가 신라의 불교미술품으로 채워져 있다. 054772-5194

### 전남지역 미술 명품 한자리

국립광주박물관 '남도 명품전'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열리는 '남도 명품전'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출토됐거나 만들어진 국보급 명품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국보 143호 화순 대곡리 청동유물 11점 등 선사시대 유물 49점과 국보 295호 나주 신촌리 금동관 1점 등 고대 유물 61점, 국보 103호 중흥산성 쌍사자석등 등



일본 아스카 시대(7세기) 금동반가사유상.



일본 아요이시대(2-3세기)에 만들어진 청동방울(중요문화재).



일본 헤이안시대(12세기) 구노지경(중요문화재).

동불이나 석불이 많은 데 비해 목조 유물이 많은 것이 가장 큰 특색이다. 재료뿐 아니라, 목조 문수보살 및 시자상(13세기)의 경우 한국의 문수보살과는 달리 밀교적 영향을 받아 칼을 들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시자상을 사방으로 배치한 것 역시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구도다. 조각의 경우 삼국의 영향을 받은 7-8세기 불

### 일본미술명품전...어떤유물 선비나

### 국보 24·중요문화재 104점

회화, 조각, 공예품, 서적, 고고자료 등 5개 주제로 나눈 전시에서 아무래도 눈길이 쏠리는 것은 불상이 몰려 있는 조각 코너다. 아스카 시대(7세기)나 나라 시대(8세기) 금동불상들은 신라 불상들과 양면에서 많이 닮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7세기 금동반가사유상은 한국에서 제

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작품이다. 일본의 독자적 미의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헤이안 시대(11세기) 목조 아미타여래좌상에서도 고려 불상과의 친화성을 느낄 수 있다. 친숙하지만 자세히 보면 우리와 차이가 느껴지는 것이 또한 불교 문화재이기도 하다. 한국은 금

상보다는 일본의 독창성이 돋보이는 12-13세기 작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삼국 불상의 영향을 엿보려는 관람객들은 실망이 앞서기도 한다.

수량은 많지 않지만 사경류도 눈여겨볼 만하다. 헤이안 시대(12세기) 구노지경에서는 금과 은을 뿌리고 그 위에 금은니로 밀그림을 그리는 등 화려하게 장식하는(장엄경) 일본 사경의 특색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보인 자지금니경평회승경(8세기)은 보라색 종이에 금줄을 긋고 금니로 글자를 썼다.

##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간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화(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도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인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국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홍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어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장애
- 뼈가 약하여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